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무너지는 계율

전북 목종단의 비구니 스님은 종단의 회의에 나가기를 꺼린다. 이유는 스님들의 모임이 일반음식점에서 버젓히 이루어지는데 더구나 속세사람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스님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요즘 스님들은 음식점 이용을 당연시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반인과 신도들 시각은 같지 않다.

과거사 율장할 허수스님은 "스님들이 계율을 모르는 것은 물론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며 "소소한 예절계율부터 못지키기 때문에 파계하다보니 자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범법경을 살피며 보살계를 지키지만, 정작 스님들 자신은 사본을 계 지키는 것을 서원하는 법회 "승가의 계율은 목숨과도 같다"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처님은 계율을 강조했다.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승가의 계율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마다 포살법회를 하라고 했다.

포살법회는 계율을 잊지 말고 잘 지키도록 율장을 반복하여 들려주는 데 초점을 둔다. 이와 겹쳐져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승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포살법회를 하는 대중처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 종단에서도 계율을 듣는 승려계율교육은 조계종계단위원회의 주최로 94년에 국석 태안사에서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계정에 3차종 계가 가장 기초적이며 비구 2백50계를 수지하겠다는 것은 수계의 기본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지킬 수 없는 계율은 종헌준법을 개정해 일정정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승가에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킬때 지계정신이 투철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종단 운영방침대로 순응”

월하스님, 총무원에 친필서명 전달 “종단 안정 바람 종도들과 똑같아”

그동안 조계종 정화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이 종단 운영 방침에 순응하기로 밝힘에 따라 조계종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하스님은 1월 26일 친필로 작성한 편지 반장 분량의 '금반 종단분규에 대하여'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승원주 3선 출마에 다수 승려가 재지하여도 재지가 안되어서 본인도 3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손을 댔던 바 3선을 막게 되었으면 똑같이 생각할텐데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유감현탄스럽습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월하스님은 또 "종단 운영 방침대로 순응하기로 통도사 전인대중이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호법국장 지경스님을 통해 월하스님의 친필 성명서를 28일 총무원 호법부장 종교스님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임회와원 및 총무원직원은 "통도사 대중의 입장을 발표하고" 새 총무원 출범 후 종단이 안정 화합되기를 바라는 진중한 마음은 다른 종도들과 다를 바 없다"며 "진심으로 화합하고 새로운"



군 해불현장에 새 법당 세운다
 육군특수전학교 법당 백마호수사(지도법사 노도영) 기공식이 1월 27일 조계종포교원 포교국장 성수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해스님, 학교장 최재환대령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법당 62평과 대웅방 등 모두 1백15평 규모로 5월 부처님오신날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수전학교 법당은 9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신교사범들이 가건물이던 법당 앞에 오물을 뿌려 법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 예산 220억 원안대로 승인

포교원장 정련스님 임명동의...해종특위법 제정

조계종 제138회 총회
 조계종 제138회 임시총회포교회가 포교원장에 정련스님을 임명동의하고 올 예산 220억 원안을 승인한 가운데 28일 폐회했다.

총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특별분담금 사할과 직역사할 분담금 수입과 관련 '분담금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조정키로 했다. 중앙총회는 23일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방종, 위원:원행 진만 광조 도각 대원 수완 정각 종도 명진 지현)와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영담, 위원:지우 설송 지홍 윤달 종삼 범상)를 구성했다. 또 총림학교관리위원회와 재심회계위원회, 화상사 일

대진상 조사특위 구성등을 다루고 25일과 26일 총회했다.

27일 속개한 총회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해종특위법)을 제정했다. 해종특위법은 정화개혁회의 관련 스님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위한 헌사적인 방법으로 해종특위의 구성과 권한, 조사 및 활동 범위, 재소권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총회는 승려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제45조 제2항인 제지 조항과 관련, 복직은 징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가능케(현행 5년)했으며 복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총회위원과 총무원의 자격을 부여토록(현행 2년)했다. 특히 개정된 승려법은 공권징지의 기간을 대폭 늘려 현행 '최하 3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를 '최하 3개월에서 최고 10년'으로 고쳤다. 제 47조 공권징지 5년 이상을 규정하는 조목에도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조항을 제1항으로 신설했다. 또 부처제조를 신성시 99년 1월 27일 제정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에 의해 호계원으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징계내용은 시면 복권, 경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총회는 기초선원운영위원회 정찬(마곡사선원장) 성덕(동화사주지)스님을 선출하는 등 안건들을 처리했다. <예신 권연기자 2면>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중국밀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704~787)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 동안 스님의 구법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본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과 공동주최로 오천속국을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걸음 창작국악교성곡으로 찾아나서려 합니다. 시인 장지현정사의 가사에 음악계의 기린아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강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혜초스님을 기리는 음악회에 사부대중과 음악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원통사 불광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현보명사 중앙불교 합창단, 진각종, 예노중앙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엽씨 ('선음악 혜초' 오카리나 연주)
 △공연 문의: 진각종 문화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문화관광부
 btn·BBS

입춘맞이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일시: 1999년 2월 4일 오전10시30분
 △장소: 삼각산 도선사 (02)993-3161

주최: 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도선사

강릉 불교방송국
 문화부 개설허가 추진

불교방송은 지난달 12일 강릉 불교FM방송국 개설 허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다. 이는 96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이 정부에 요청했던 지역 FM방송국 건립 신청에 따른 것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2월의 문화인물 혜초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 함께 합니다.”

절을 향한 마음 우리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규격간판(도로 지주용 간판)에
 러가 대행, 제작, 설치를 가람기획이 담당하겠습니다.

가람 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수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장식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의성은 기본이고 경당 중앙이 45kg으로 (층기와 68kg, 청기와 55kg)가람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 가람 동기와에서는 생산, 시공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정을 감소합니다.

가람 기획 간판의 장점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길다.
- 아광 스텐레스로 밤에 간널 자체 발광으로 위치확인이 명확합니다.
-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 가격이 저렴합니다.
-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지지 않습니다.

가람 기획의 장점

- 현재 까다로운 관공서의 규격 지주용 간판 허가를 대행합니다.(설치규격은 건설부 지침임)
- 설치날짜의 기간을 준수합니다.

취급 품목: 사찰안내간판, 사찰인혁판, 전주용간판, 계시판, 현수막, 목간판,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등...

수유리 본원정사

강화 백련사

가람동기와

☎ 02)720-5121 FAX.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B/D 202호

가람 기획